WWF
KOREA

# 2025 연간보고서

## ANNUAL REPORT 2025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3,800만 명 이상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인식 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WWF는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f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간 정보**

**제목**: 2025 한국WWF 연간보고서
**발행인:** 박민혜
**발행처:** 한국WWF
**발행일:** 2025년 11월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블로그 느리게 천천히 걷기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2025 한국WWF 연간보고서
ⓒ Text and graphics 2025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 목차

**인사말** 2

**WWF 소개** 4

**WWF 주요 활동**

- 기후 8
- 생물다양성 12
- 플라스틱 22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28
- 변화를 위한 참여 32

**판다 이야기** 38

**회계 보고** 42

**WWF 네트워크** 44

# 인식에서 실행으로, 회복의 5년을 향해

한국WWF 이사장
**홍정욱**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경제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구 평균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1.5도를 넘고 있으며, 폭염, 산불, 가뭄, 폭우의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고를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실행'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WWF는 언제나 그 해답을 자연에서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숲과 바다는 탄소를 흡수하고 생명을 지탱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개발하거나 보전하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한국WWF는 기후, 자연보전,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전환을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는 한국WWF가 글로벌 WWF 네트워크와 함께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였으나, 아쉽게도 각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한 협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도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협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한 자연보전이 아닙니다. 자연의 회복은 사회와 경제의 회복 등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통합적 해법입니다.

WWF는 이러한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과 실행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과 시장, 기업과 시민을 연결하고, 토론하며 활동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WWF는 패배감이 아닌 희망으로, 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긍정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자 목표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전환을 이끈다는 믿음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다가오는 5년, 우리의 선택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국WWF 사무총장
**박민혜**

지난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은 평균 73% 감소했습니다. WWF의 「지구생명보고서 2024」는 지구가 회복이 어려운 임계점, 즉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점점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폭염과 홍수, 가뭄과 같은 극심한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지금, 자연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고에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한국WWF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 시민의 참여,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UN Global Plastics Treaty)'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WWF는 공식 옵저버로 참여해 전 세계 300만 명의 지지 서명을 전달하며 강력한 협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비록 협상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PACT(Plastic Action) 등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플라스틱 감축과 순환경제 전환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숲 복원과 블루카본 조성 등 해양 보전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이 자연 관련 재무공시(TNFD)를 채택하도록 지원하며 기후 리스크와 생물다양성이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에 자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WWF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2030년까지 자연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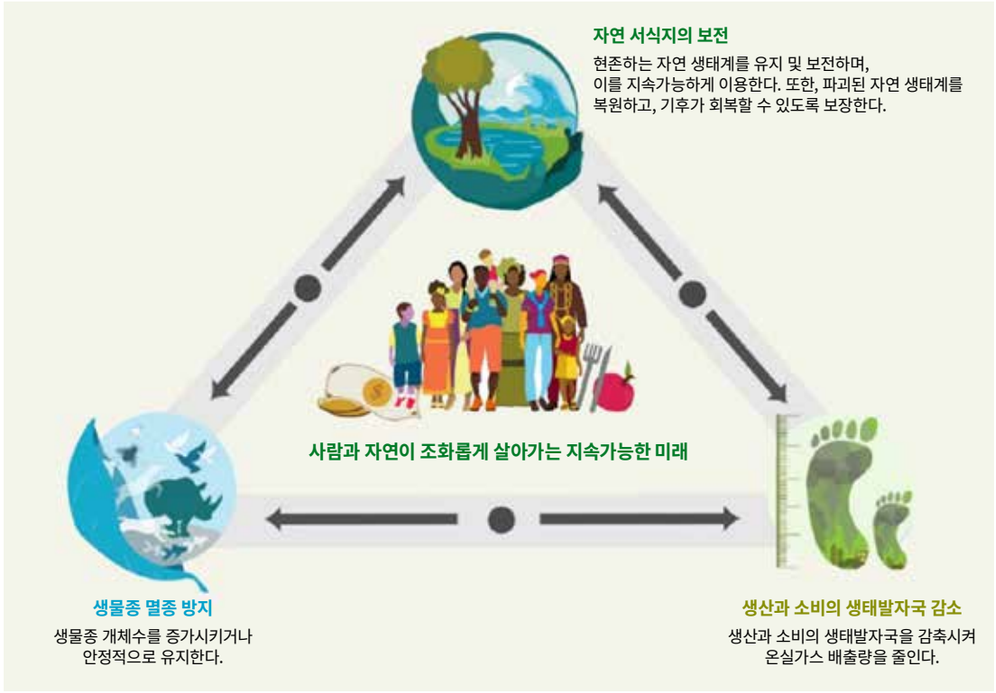
지구를 지키는 일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WWF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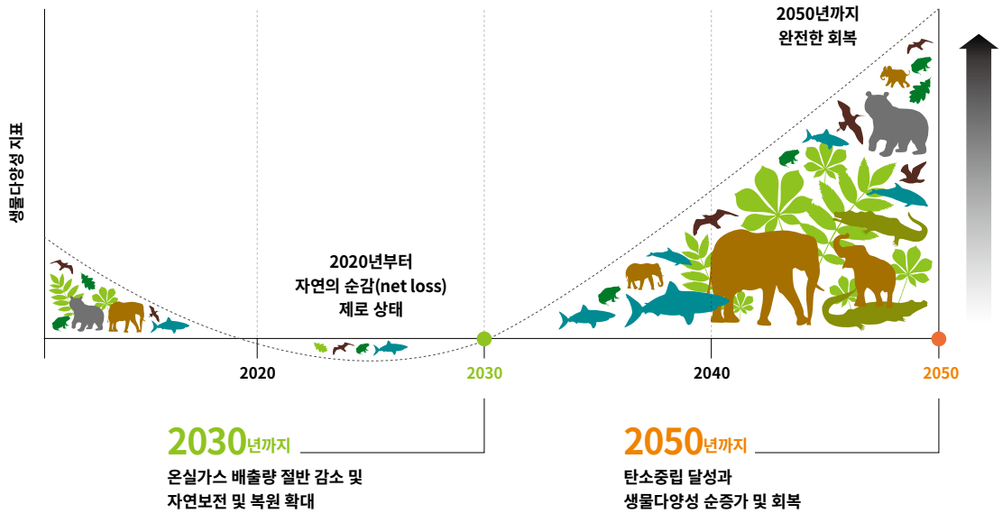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는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WWF의 목표는 자연 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 자원이 지속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자원의 낭비와 오염을 줄이는 인식 증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WWF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생명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업이 과학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세계 최초의 '세계보전전략'을 수립했으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및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사회의 환경 아젠다를 선도하고 있다. WWF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학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WWF가 만드는 세상




WWF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연 보전과 복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의 완전한 회복 상태인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네트워크 | SNS 서포터즈 | 후원자 | 프로젝트 |
|---|---|---|---|
| 100 여 개 국가 | 3,800 만 명 이상 | 600 만 명 이상 | 13,000 개 이상(1960년 이후) |

## 한국WWF

한국WWF는 2014년 3월 공식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았다.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대표하는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국내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으며,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환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왔다. 특히,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슬로건 '지구를 지키는 힘, WWF' 아래 사회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기업,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솔루션 중심의 연구, 정책 제언, 대중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생물종 및 서식지 보전,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활동 범위와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 Jürgen Freund / WWF

# WWF
# 주요 활동

기후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변화를 위한 참여

# 기후

재생에너지 전환과 자연 회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 활동 배경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향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 임계값은 이미 초과되었거나 조만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과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전환을 위한 노력과 자연 생태계의 회복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WWF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McDonald Mirabile / WWF-US



## 주요 활동

###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활동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는 한국WWF,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UNGC),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2020년에 공동으로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2025년 1월 CoREi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최신 정책 및 산업 동향을 주제로 회원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지원 서비스 확대와 정책·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조명했으며,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입지 정책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 등 다양한 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WWF는 CoREi의 주요 운영 기관으로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limate Action Round-Table, CART)

한국WWF는 한국씨티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2018년부터 지난 6년간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ART)을 개최해 왔다. 2024~2025년에는 총 3회의 CART를 열어 기업의 기후행동 강화를 촉진했다. 각 회차에서는 기후공시, 자연자본, AI, 재생에너지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핵심 이슈가 다뤄졌으며, 국내외 산업계,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24년 12월 진행된 제10차 CART에서는 '기후공시 대응을 위한 기업의 기후행동'을 주제로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와 기후공시에 대한 이해를 다뤘고, 2025년 2월 개최된 제11차 CART에서는 '자연자본 정보공시(TNFD) 동향과 대응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해 4월 제12차 CART에서는 'AI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주제로 AI 혁신과 공급망 재생에너지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기후행동을 촉진했으며, 참여 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 COP29, 기후재원과 화석연료 감축 관련 논의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개최되었다. 이번 COP29에서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신규 기후재원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WWF는 이번 회의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지만,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어떤 약속도 실행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3%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 기반 목표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식량 시스템 전환, 자연 보전과 복원 등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제시하며, 기후와 자연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의 NDC와 NBSAP 이행 수준 분석

COP29를 앞두고 각국은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s)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상향한 NDC2.1을 2021년 제출했으며, 한국WWF는 WWF의 'NDCs We Want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이를 재분석했다.

분석 결과, WWF가 발표한 글로벌 NDC 평가에서 한국은 'Long way to go(갈 길이 멀다)'로 분류되었다. 목표 수치는 제시되었으나 총 이행 비용과 재원 조달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산업 부문별 정량적 감축 목표 또한 구체화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주요한 평가 이유였다. 한국WWF는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 구체적 이행 계획과 재정 전략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WWF는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 NBSAP)'의 이행 수준을 평가했다. 2024년 9월 WWF가 공개한 'NBSAP 트래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의 23개 목표 중 21개를 반영했으나,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구체성이 부족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재정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산림 손실을 줄이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하고 완화하는 구체적인 실행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블루카본 바다숲 조성 프로젝트

WWF는 현대자동차 및 한국수산자원공단(FIRA)과 협력해 울산광역시 해역 일대에 총 3.96km$^2$규모의 블루카본 바다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바다숲은 곰피, 다시마, 미역 등 대형 해조류를 이식하거나 복원해 조성하는 수중 생태계로, 해양 생태계 회복과 탄소 흡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번 바다숲 조성 사업은 갯녹음과 해양오염으로 황폐화된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블루카본 생태계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다숲은 1km$^2$당 연간 약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소·인 등 오염물질 정화와 해양 생물의 서식지 제공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한다.

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 Peter Chadwick / WWF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회복의 초석이며,
우리의 작은 변화가 지구의 균형을 지킨다.

## 활동 배경

생물다양성 손실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위기이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 야생 척추동물 개체군은 평균 73% 감소했고, 특히 담수 생태계는 약 85%의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이는 식량, 물, 기후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WWF는 이러한 손실을 되돌리며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보전, 해양쓰레기 저감, 연구 지원, 인식 제고 활동을 추진하며 생태계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Jeff Duerr



## 주요 활동

###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 2024 발간

2024 지구생명보고서가 2024년 10월 10일 전 세계 동시 발간됐다. 지구생명보고서는 지구 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WWF의 대표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평균 규모는 73% 감소했으며, 지구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티핑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담수 생태계는 85%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처럼 급격한 감소는 생태계 회복력을 약화시켜, 임계점을 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전환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서식지 파괴와 황폐화, 식량 시스템의 압박, 자원 남용, 외래종 침입, 질병, 기후변화 등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이 위기를 완화하고 회복의 궤도로 나아가기 위해 보전 시스템 전환, 식량 시스템 혁신, 에너지 시스템 전환, 금융 시스템 전환 등 네 가지 핵심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보고서 발간에 맞춰 한국WWF는 국내 생태계와 식량 시스템, 지속가능한 금융 현황,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해결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3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생태계의 위기와 해결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 ‘30X30 얼라이언스’ 참여

WWF는 환경부 주최로 출범한 「30x30 얼라이언스」에 공식 참여했다. ‘30x30’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의 목표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해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참여는 다양한 지형과 DMZ, 갯벌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를 지키고 국제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WWF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정책 제안과 정보 교류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세계식물원교육총회 세미나 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WWF는 2025년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에 참가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국립수목원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국제 기관의 교육적 접근 방식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자연보전 활동이 어떻게 융합되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WWF는 자연보전 캠페인 ‘애니스테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까막딱따구리,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사례를 소개하고,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기후변화와 침입종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 연구

꿀벌은 생태계의 안정과 식량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WWF는 서울대학교 기후연구실과 함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꿀벌에 미치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분석했다.

2023년 1차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특히 PM2.5 증가가 꿀벌의 시각적 방향 탐색 능력을 저하시켜 먹이 탐색 시간이 길어지고 수분 효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HIVE(Human Interactions with our Vital Ecosystem)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대기오염과 온도 상승이 꿀벌 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2024년 2차 연구에서는 기후변동성과 침입종인 등검은말벌이 꿀벌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온 상승, 강수 변화, 침입종 확산은 꿀벌의 수분 활동을 저해하고, 생물다양성 감소와 식량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꿀벌 보호가 단순한 종 보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WWF는 앞으로도 생태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꿀벌 서바이벌 게임 런칭 www.beesurvival.co.kr

WWF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20일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온라인 게임 ‘꿀벌 서바이벌: 꿀벌을 지켜라!’를 공개했다. 이 게임은 폭염, 폭우, 외래종 등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꿀벌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꿀벌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게임 시나리오는 WWF가 4월 발표한 「기상 변동성과 침입 포식자의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가 꿀벌 군집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과학적 연구와 대중의 인식 제고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보전 사업

### ① 멸종위기 동물 보호하는 가상 숙박 예약 캠페인 '애니스테이(ANISTAY)'

WWF는 여행 플랫폼 'NOL(야놀자)'과 함께 국내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캠페인 '애니스테이(ANISTAY)'를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여행 플랫폼을 통해 WWF가 선정한 멸종위기동물 대표 5종(까막딱따구리, 꿀벌, 바다거북, 반달가슴곰, 수달)의 서식지 정보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상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존의 단순한 기부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재미있는 형태로 자연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약 4주간 10만 명 이상이 캠페인 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대중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기부금은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애니스테이'는 한국WWF의 대표적인 멸종위기종 보전 활동으로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 ② 베트남 우민트엉 국립공원 수달 서식지 및 람사르 습지 복원

한국WWF와 한솔섬유는 2025년부터 향후 3년간 WWF-Vietnam과 함께 베트남 우민트엉(U Minh Thuong) 국립공원의 수달 서식지 및 람사르 습지를 복원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국립공원 내 람사르 습지 복원, 수달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수생 생물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③ 인도네시아 발리 바다거북·맹그로브 복원 사업

WWF는 롯데마트와 함께 해양 보전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5월, 인도네시아 발리 사누르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맹그로브, 바다거북 보전 등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영화 상영, 자원 순환 체험 등과 함께 맹그로브 숲 묘목을 직접 심어보고 바다거북 보전 및 교육 센터에서 바다거북 방류 활동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WWF-Indonesia와 협력하여 추진했다.

### ④ 멸종위기종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 활동

WWF는 시민단체 '저어새와 친구들'과 협력하여 저어새 보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남동 유수지를 중심으로 저어새 서식지인 갈대밭을 관리하고, 휴식지를 조성하며, 개체군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번식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저어새 생일파티' 참여 등 대중 인식 제고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카카오게임즈, 아고다 등의 후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⑤ 도심 속 수달 서식지 보전 활동**

WWF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수달 서식지 보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샛강과 중랑천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진행해 수달이 한강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5월 28일 '세계 수달의 날'을 맞아 선유도와 중랑천에서 '수달 그리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수달 투어, 수달 책방, 수달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⑥ 백령도 황새 긴급 구호 활동**

출처: 인천녹색연합

WWF는 인천녹색연합 및 조류 전문가들과 협력해 한파로 먹이를 구하지 못한 황새를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2024년 11월, 100여 마리의 황새가 백령도에서 월동하던 중 계속된 한파로 화동습지와 인근 농경지가 얼어붙어 심각한 먹이 부족 상황에 놓였다. WWF는 황새들이 무사히 월동을 마치고 번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총 2회에 걸쳐 미꾸리를 먹이로 제공했다. 이번 대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 속에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구호 활동이었으며, WWF는 철새 서식지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⑦ 바다거북 서식지 보전 및 생태 모니터링**

WWF는 디프다제주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제주 지역의 애월, 중문 색달, 송악산 등 바다거북이 출몰하는 해역에서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안가와 수중에서 폐로프, 어구, 플라스틱 병, 부표 등 다양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며,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한 이번 정화 활동은 바다거북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자,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 해외 보전 활동 지원

한국WWF는 WWF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에서 진행되는 지역 단위 보전 활동에도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분류된 멸종위기종과, 중요생물다양성지역(Key Biodiversity Areas, KBAs)으로 지정된 주요 생태계 지역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WWF는 지난해 세 가지 주요 해외 보전 활동을 지원하며, 국내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전 지구적 보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① 중앙아시아 눈표범 보전 활동**

중앙아시아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눈표범은 최근 기후변화, 밀렵, 가축 공격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WWF는 인도 북동부 시킴 지역과 네팔 히말라야 칸첸중가 지역에서 눈표범 개체 수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탄에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밀렵 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목민과 협력하여 약품 및 사료를 지원하고, 전기 울타리와 태양광 가로등 등을 도입해 가축 피해를 줄이며 눈표범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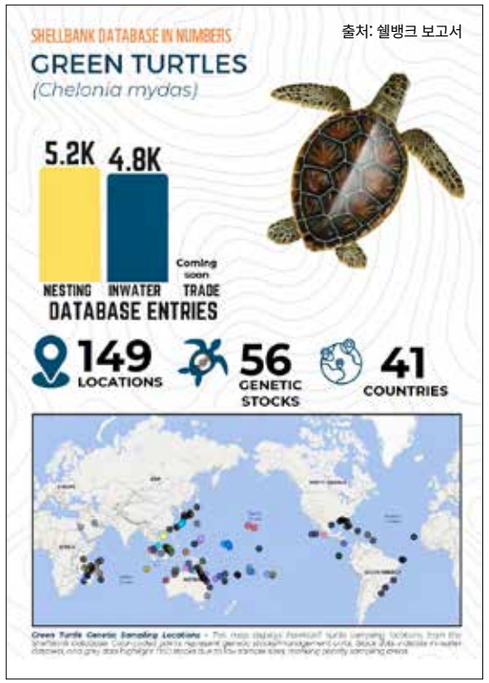
© Sascha Fonseca / WWF-UK

**② 바다거북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쉘뱅크(ShellBank)'**

WWF는 쉘뱅크(ShellBank)와 협력해 전 세계 바다거북의 DNA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불법 거래 추적 및 보전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수천 건의 샘플이 등록되었으며, 개체 이동 경로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주 해양 정화 활동 중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샘플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어, 국내 활동 또한 글로벌 보전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 한경면 두모리 해안 근처에서 발견된
푸른바다거북(Chelonia myd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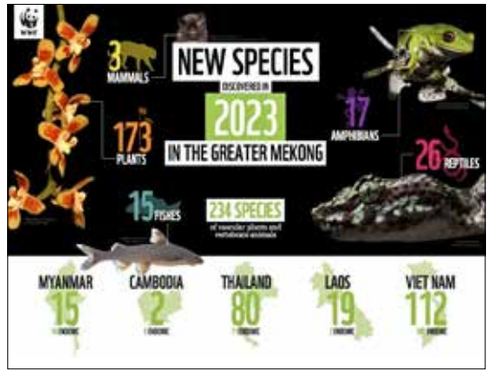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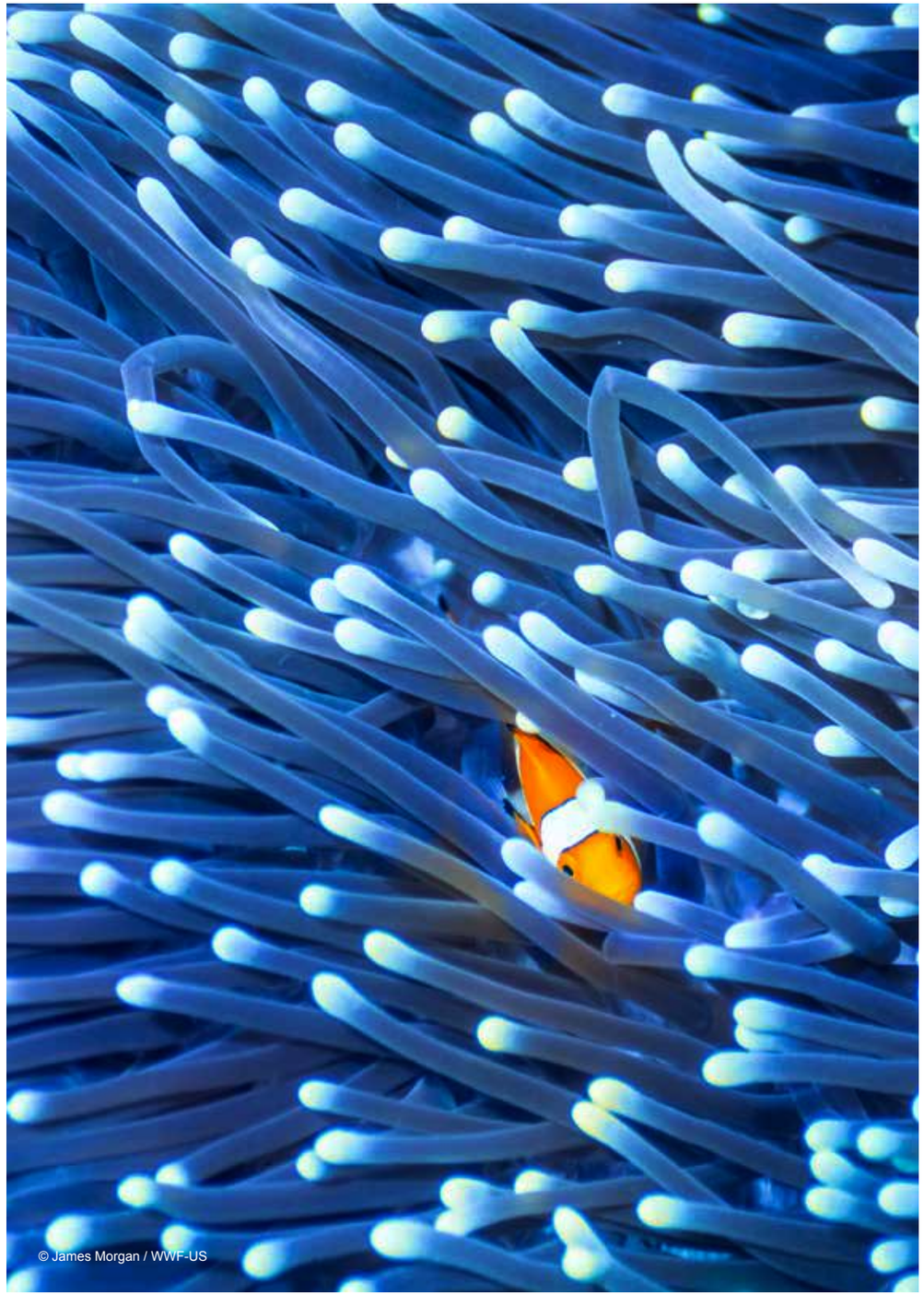

출처: 쉘뱅크 보고서

**③ 메콩강 신종 발견 보고서(New Species Report of Mekong Region) 발간 지원**

메콩강 유역은 동남아시아 5개국에 걸쳐 흐르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WWF는 이 지역에서 서식지 보전과 야생생물 불법 거래 방지 등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와 함께 다양한 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메콩 신종 발견 보고서'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생물종을 소개하고 있다.

2023년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서 총 234종의 신종이 새롭게 확인되었고, 1997년 이후 누적 종수는 3,600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불법 거래,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종이 발견되기도 전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보고서는 메콩강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 James Morgan / WWF-US

# 플라스틱

감축을 넘어 순환경제로 가는 길, 함께 열어가야 할 때

## 활동 배경

WWF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자연으로의 플라스틱 유출 제로(No Plastics in Nature)' 전략을 중심으로,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는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지역 공동체 등 모든 주체가 함께 행동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 지구적 문제다.

출처: WWF-International



## 주요 활동

###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2024년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국제사회의 전향적인 변화가 기대된 한 해였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제사회는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를 이어왔다. 당초 2024년을 협상안 제정의 마무리 시점으로 계획했던 가운데, 전 세계 180여 개국 3,000여 명의 대표단이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최종 회의 장소인 대한민국 부산에 모였다.

WWF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채택을 촉구하며, INC-5의 공식 옵저버로 참여해 회의장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서 각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비록 INC-5에서 공식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WWF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① 글로벌 서명 캠페인 및 서명 전달식**

WWF는 2023년 10월부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채택을 촉구하는 'BanIt' 글로벌 서명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약 300만 명, 국내에서는 2025년 7월 기준 3,690명의 시민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지지를 표명했다.

협상 개막 전날인 11월 24일, WWF는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고위급 이해관계자 행사 '자연이 필요로 하는 협약: 해결책과 공동의 야망으로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Delivering A Treaty that Nature Needs: Powered by Solutions and Shared Ambition)'를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 기업, 시민사회 단체(CSO), 과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WWF는 그린피스 및 BFFP(Break Free from Plastic)와 함께 이 서명을 부산 현장에서 각국 협상단에 전달했다.

특히 '아기기후소송' 소속 어린이 활동가 한제아·김한나가 직접 르완다 환경관리청 국장과 미국 상원의원 등 대표단에게 서명을 건네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국제 협상 테이블에 전했다.

### ② 부산 플라스틱 행진

WWF는 INC-5 개최 전 부산 벡스코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에 참여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이 함께한 이번 평화 행진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③ 국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WWF는 INC-5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 입구에서 국제 환경 NGO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닌 용기'를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WWF, BFFP, 국제환경법센터(CIEL), 그린피스 등 국제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약 200여 명이 참여해 강력한 협약 성안을 촉구했다.

### ④ 한국WWF 세미나 개최

한국WWF는 환경부 부대행사 'Rethinking Plastic Life'에 참여해 "성공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연구기관, 국제 NGO, 지방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강력한 국제협약 달성을 위한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 ⑤ 부산 영화의 전당 '국민공감 문화예술교육' 행사 참여

INC-5 개최를 기념해 WWF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문화예술교육'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기간 동안 WWF의 플라스틱 오염 및 자연보전 활동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11월 26일 기념식에는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 ⑥ '다니엘 키친(Daniel's Kitchen)' 캠페인

WWF는 INC-5를 한 달 앞두고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Daniel Dae Kim'과 함께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니엘 키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밥을 소재로 한 이 영상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국제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 ⑦ 부산 지역 옥외 홍보 전개

WWF는 INC-5 기간 동안 부산 주요 지역에서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옥외 캠페인을 진행했다. 벡스코 인근 버스 정류장, 센텀시티 지하철역 디지털 포스터, 아우디 해운대 빌딩 LED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서면, 경성대, 동래, 광안리, 해운대 일대를 순환하는 LED 차량 광고를 운영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 PACT(Plastic ACTion) 기업 공동 선언 활동

PACT(Plastic ACTion)는 WWF가 주도하는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기업들이 제품 생산부터 디자인·포장 단계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사용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도록 독려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2019년 WWF 싱가포르 본부에서 처음 출범한 이후, 에비앙(Evian), 하얏트(Hyatt), 힐튼(Hilton)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1,2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감축에 기여했다.

한국에서는 2021년 공식 출범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산업 간 협력을 통해 감축 기회를 발굴하고 WWF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 PACT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감축 이행에 동참할 수 있는 협력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①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Plastic Roundtable) 개최**

WWF는 기업 간 협력과 플라스틱 감축 관련 정책·동향 논의를 위해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산업별 실행 전략과 순환경제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4년 10월 열린 제5차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방향과 순환경제 관련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WWF는 PACT에 참여한 13개 기업이 2023년 총 18,509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한 성과를 발표하고, 신규 참여 기업인 롯데칠성을 소개했다. 또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을 소개하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있어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3월 개최된 제6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소비자 행동 변화와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중의 지속가능한 소비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으며, 친환경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포장재 감축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소비자 신뢰 형성, 인증제도 도입, 세대별 인식 차이 해소 등 주요 과제를 공유하며,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실행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 지속가능 포장재 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

WWF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그리고 상품 공급 및 판매 기업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 밸류체인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 강화와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인식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7개 상품 공급업체와 3개 판매업체가 협력하여 포장재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 목표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2024년 12월에는 '지속가능한 패키징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국제사회 및 소비자 요구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2월에는 이마트 바이어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포장재와 기업의 비

즈니스' 교육을 진행했다. 이마트는 WWF와 함께 개발한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의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패키징 플레이북'을 발간하여 포장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해양 플라스틱 정화 활동

**①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

WWF는 부산에서 열린 INC-5 협상을 앞두고 가덕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약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활동을 통해 통발, 폐어구, 로프, 비닐 가림막 등 약 4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렸다. 특히 어구에 얽혀 폐사한 볼락과 게 등 해양생물이 발견되며,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직접적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WWF는 2021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력해 imPACT 펀드를 활용한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225톤의 해양 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② 통영 해양 정화 활동**

WWF는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추진 중인 주민자율수거사업을 통해 2024년 통영 연대도 6개 해변에서 약 23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해류의 영향으로 쓰레기 유입이 집중되지만 관리가 어려웠던 연대도에서, WWF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장비를 지원하고 정화 운반선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 참여형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수거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정화 운반선 운항 빈도도 늘어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본 사업은 단순한 해양 정화를 넘어 주민의 환경 인식 개선과 생계 지원 등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며, WWF의 'No Plastics in Nature' 전략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세상을 바꾸는 변화는 언제나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 활동 배경

WWF는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포장재 감축, 물 자원 회복, 식량 시스템 전환, 불법 야생동물 거래 대응 등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협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임직원 참여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후원 관계를 넘어,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로 전환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WF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민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고, 더 많은 기업과 함께 기후·자연 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다.

## 주요 활동

###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물 환원 프로젝트 및 플라스틱 순환 캠페인

코카-콜라와 WWF는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이어오며, 담수와 플라스틱 등 비즈니스와 연관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7년부터 물 환원 및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며, 여러 기업과 지자체, 지역 NGO와 협력해 사업의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코카-콜라의 글로벌 수자원 복원 프로그램인 '물 환원 프로젝트'는 제품 생산 및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물의 양을 자연과 지역사회에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코카-콜라는 2035년까지 물 부족 지역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물 환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WWF와 함께,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운 소규모 저수지 준설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하며 지역 주민 삶을 개선하고 있다. 2018년 김해를 시작으로 낙동강 유역 저수지를 준설했으며, 2025년에는 광주, 함안, 의령 저수지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물 부족 위험이 큰 여주 지역에서 숲 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345ha의 숲을 조성하여 지하수 수원을 늘렸다.

출처: 한국 코카-콜라

한편, 글로벌 코카-콜라는 203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5~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WWF와 함께 '원더플(ONETHEPL)'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캠페인은 소비자에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과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자원 순환 모델을 알리며, 2025년 시즌 6부터는 대학생 '캠퍼스 챌린지'를 새롭게 시작하여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원더플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15만 5천여 명이 참여해 91톤 이상의 페트병을 수거했다.

## 이마트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전환 프로젝트

‘우리가 매일 구매하고 소비하는 상품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라는 믿음 아래, WWF와 이마트는 2022년부터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PSI)를 통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마트’라는 일상 공간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상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줄이며, 친환경 포장재 도입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제안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지속가능한 상품 공급망 구축의 일환으로 ‘K-퓨처 푸드 52(K-Future Foods 52: 한국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WWF와 이마트,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식재료의 영양 밀도, 생산량, 섭취자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 및 물 사용, 가격 적정성, 그리고 한국인의 식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 모두에 이로운 52가지 식재료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K-Future Foods 52’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 2024년 7월 WWF 판다토크에서는 명현지 셰프가 근대, 귀리 등 선정된 식재료를 활용한 케이터링을 진행했으며, 11월 개최된 ‘K-Future Foods 52 오픈토크&푸드쇼’에서는 송길영 작가와 방송인 줄리안이 지속가능한 식생활 트렌드와 중요성을 소개했다. 또한 최현석 셰프는 참나물과 귀리를 활용한 냉파스타 요리를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 한진과 함께하는 물류 산업 지속가능 전환 및 IWT 대응

WWF와 한진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 기관은 탄소 감축 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불법 야생동물 거래(Illegal Wildlife Trade, IWT)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진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감축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멸종위기종 운송 금지 등 IWT 방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물류·운송업계의 IWT 근절을 위한 국제 협약인 ‘버킹엄 선언(Buckingham Palace Declaration)’에 서명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하며, WWF의 IWT 관련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전사 차원의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 파트너데이·웨비나 개최를 통한 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WWF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WWF 파트너데이’와 ‘WWF 웨비나’를 개최했다.

2024년 12월 16일에 열린 ‘WWF 파트너데이’에는 5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WWF의 주요 프로젝트와 협업 기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플라스틱 감축,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어스 프로그램(Earth Program)’을 통해 교육·문화·스포츠·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파트너십 기회를 제안했다.

2025년 3월 처음 열린 ‘WWF 웨비나’는 EU 산림벌채 방지 규정(EUDR)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속가능한 산림 공급망 전환 방안, 공급망 리스크 진단, 기업 맞춤형 ESG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파트너 임직원 참여 활동

WWF는 파트너 기업과 함께 임직원이 직접 자연 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태계 및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실천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GS건설, 무신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카카오게임즈, 아고다, 뷔나에너지 등 총 7개 기업에서 200여 명의 임직원들이 WWF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

한강, 중랑천, 여의샛강생태공원, 선유도공원 등 도심 담수 생태계에서는 수달 쉼터 조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목책 설치, 생츄어리 조성 등 서식지 복원 활동이 진행됐다. 인천 남동유수지에서는 저어새 번식지 모니터링과 정화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종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또한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교육과 해안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임직원들이 기후·환경 문제를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기업 구성원이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실천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WWF의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 변화를 위한 참여

지구를 지키는 힘, 우리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 활동 배경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이중 위기가 가속화되며, 시민의 행동 변화와 인식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WWF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중 참여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스아워(Earth Hour)'와 같은 글로벌 캠페인부터 일반 시민과 청년, 어린이 등 연령 및 관심사별로 기획된 프로그램까지, WWF는 모두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주요 활동

### 그린터뷰(Greenterview) 시즌3

2024년 8월, 한국WWF 홍보대사 타일러 라쉬와 함께한 환경 관련 인터뷰 콘텐츠 '그린터뷰' 시즌 3를 공개했다. 그린터뷰는 2022년부터 환경, 기후, 자연보전의 메시지를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해 왔다. 시즌 3는 '고민을 행동으로 옮긴 Pioneer(개척자)'을 주제로,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실천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번 시즌에는 빅테이터로 분석한 지구의 위기, 기후소송 및 법제 대응, 친환경 패션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케이팝과 팬덤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총 4편의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특히 기후소송 편이 공개된 뒤, 2024년 8월 말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점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린터뷰가 다룬 주제와 실제 제도 변화의 시점이 맞물리며, 콘텐츠의 시의성과 메시지 전달력이 한층 강화됐다.



### 어스아워(Earth Hour) 2025

2025년 3월 22일 저녁, 전 세계 곳곳에 지구를 위한 1시간의 어둠이 드리워졌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어스아워에 동참한 120여 개국의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 낸 성과이다. 기후위기와 자연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WWF의 대표적인 캠페인 어스아워는 국내에서도 119개의 공공기관과 주요 랜드마크 및 시민들이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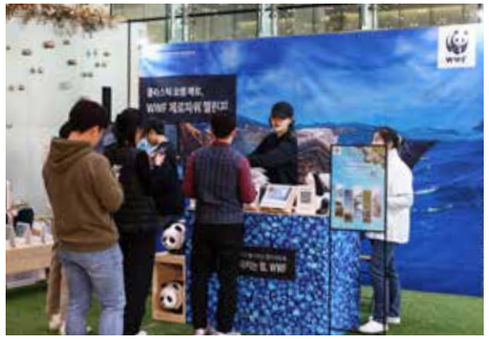
한국WWF는 지난해에 이어 지구를 사랑하는 영웅들의 결집을 주제로 한 '다크히어로 어셈블 (Dark Hero Assemble)'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약 5,500명의 다크히어로가 참가해 지구를 위한 다짐을 남기며 어스아워에 함께 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리틀 다크히어로' 프로그램에는 61개 기관, 1,007명이 참여했다. 동물 게임, 환경 퀴즈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자연보전 메시지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다. 이번 어스아워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 국제 환경의 날, 지역사회와 함께한 환경 실천 교육

WWF는 6월 5일 제주에서 열린 '제54회 국제 환경의 날' 기념 행사에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주제로 교육 및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해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폐어구와 플라스틱 부표로 제작한 '플라스틱 트리' 전시, 플라스틱 오염과 멸종위기 해양생물 관련 교육,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 서명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WWF는 시민들이 환경 문제를 쉽게 체감하고 자발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공공 환경교육 사례를 만들었다.

##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시민 참여 캠페인 '제로파워챌린지'



WWF는 협력 기업과 함께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해 '제로파워챌린지(Zero Power Challenge)'를 진행했다. 이번 챌린지는 기업 내외부 공간에 팝업 부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2025년 11월 IFC 몰을 시작으로 BYN블랙야크그룹 본사, GS건설 본사(그랑서울), 세아상역까지 이어졌다. WWF는 부스를 통해 바다거북, 고래 등 플라스틱으로 위협받는 생물종의 사례와 해양 생태계의 위기를 시각적으로 전시해 임직원과 방문객들의 인식을 높였다. 이번 캠페인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임직원들의 환경 감수성을 강화하고, 이를 일상 속 실천 행동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 미래세대가 직접 기획한 자연보전 캠페인 '유스파워챌린지'

WWF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을 주제로 대학생 공모전 프로그램 '유스파워챌린지(Youth Power Challenge)'를 진행하며, 미래 세대가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 팀들은 탄소 배출, 플라스틱 오염, 푸드 웨이스트, 멸종위기종 보전 등 4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서명 캠페인을 기획·운영했고,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WWF의 일원으로서 자연보전을 목표로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뜻깊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 서울외국인학교 환경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

WWF는 미래세대의 환경 감수성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서울외국인학교와 자연보전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① 인터네셔널 페어에서 멸종위기종 보전 캠페인 운영

2025년 4월 26일 열린 서울외국인학교의 연례 행사인 '인터네셔널 페어(International Fair)'에서 멸종위기종 보전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주제로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애니스테이' 캠페인 등 WWF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포토부스와 스티커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교내 WWF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이벤트를 기획·운영해 청소년의 시선에서 환경 메시지를 전달했다.

### ② 미래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교육

2025년 6월 2일에는 6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No Plastics in Nature'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경로, 한 재활용 시스템, 생활 속 플라스틱 감축 실천 방안 등을 소개하고, 게임과 퀴즈, 다짐 활동 등을 통해 환경 교육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였다.

## 기부의 일상화를 이루는 디지털 기부 플랫폼 '클릭투기부'

한국WWF는 2025년 3월,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일상에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쇼핑 연계 기부 플랫폼 '클릭투기부'를 출시했다. 최근 디지털 세대를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소액으로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부 방식을 고안한 것이다.

'클릭투기부'는 이용자가 쇼핑할 때 구매 금액의 일부가 WWF에 기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후원 신청이나 추가 비용이 필요 없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쇼핑만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바다거북, 수달 등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과 WWF의 다양한 자연보전 활동에 활용된다.

출시 약 4개월 반 만에 앱 다운로드 7만 회를 돌파하며, '기부의 일상화'와 '누구나 쉽게 기부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별도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 덕분에 기업 및 기관과의 협업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클릭투기부는 멤버십 제도, 재방문 유도 프로그램, 제휴사 맞춤 기능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 naturepl.com / Afio / WWF

# 판다 이야기

# 판다 이야기

WWF에서는 서로를 '판다'라고 부르며 하나의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
판다와 판다가 모여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는 판다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WWF-Japan CEO 인터뷰

### 토바이 사다요시(Tobai Sadayosi)

**현재 WWF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2020년부터 WWF-Japan CEO로 재직하며 WWF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WWF-Japan에서 습지 보전 오피서, 보전국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한국WWF 설립 이전부터 한국과 인연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한국에 WWF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을까요?**

습지와 철새 이동 경로 보전 오피서로 일하던 시절부터 한국·일본·중국 3국이 철새와 습지를 함께 지키는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대한민국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Ramsar COP10)에 참석했는데, 당시 무안군의 지역 리더들이 갯벌 생물다양성과 문어 어업을 주제로 한 춤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때 지역의 자연과 풍부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참여를 만들어낸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무안은 시범 사업 지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더 방문할 수 있었고, 그 인연을 기회로 '황해 생태지역 프로젝트(Yellow Sea Ecoregion Project)'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WWF가 꼭 필요했고, 지금 한국WWF가 자리를 잡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출처: Tobai Sadayosi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의 무안 춤 공연'

**WWF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보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또한 이와 관련해 WWF-Japan이 추진한 의미 있는 파트너십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시아·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자연 자원의 과도한 사용과 생태계 훼손이라는 심각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WWF는 이를 지속가능한 전환의 기회로 보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고 농업·임업·식품 생산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WWF-Japan은 글로벌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Bridgestone)'과 협력해 인도네시아의 천연고무 농가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국 WWF 오피스가 이처럼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배우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보전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WWF와 WWF-Japan이 앞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현재 한국WWF와 WWF-Japan은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그린스틸(Green Steel)' 전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세계 10대 철강 생산국에 속합니다. 또한 두 나라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글로벌 철강 공급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나라의 협력이야말로, 글로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에 큰 기여를 할 거라 기대합니다.

출처: Tobai Sadayosi

**오랜 시간 WWF에서 일하며 무엇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나요?**

우선, WWF의 보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마주할 때마다, 소중한 장소들을 미래 세대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열정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또한 WWF와의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과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WWF를 응원해 주는 후원자와 판다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WWF의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WWF가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ogether possible!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 후원회원 인터뷰 1

## 김도율 후원회원

### ‘지구를 위한 행복한 습관, 일상 속 소확행 후원 이야기’

**WWF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4년, 강남 거리를 지나가다 WWF의 대면모금 활동을 통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판다 그림과 귀여운 인형을 보고 흥미가 생긴 것도 계기였지만, 당시 여자친구가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후원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아 꿈도 수의사였는데,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월 2만원 정도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원을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동이체 문제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작년 WWF의 연락을 받고 다시 후원을 재개했습니다. 20대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 후원 금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30대가 되면서 그런 부담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좋은 일을 위해 함께한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WF 활동 중 가장 인상 깊게 본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무엇인가요?**

최근 진행된 마라톤 행사처럼 일반 시민과 후원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자연보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한 취지로 모이는 그런 행사에 언젠가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도율 후원님께 WWF 후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변에서 매주 로또를 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당첨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행복한 상상을 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즐겁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 공감되곤 합니다. 저에게 WWF 후원은 그런 ‘행복한 기다림’과도 같습니다.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모두의 지구를 지키는 선한 일에 참여한다는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WWF 후원은 제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위로이자 소확행으로 느껴집니다.



# 후원회원 인터뷰 2

## 포일 해맑은 어린이집 이원주 원장

### ‘어린이의 배움이 환경을 위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후환경 어린이집’

**WWF에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포일 해맑은 어린이집은 의왕시 특화사업으로 ‘기후환경 어린이집’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환경을 살리는 플리마켓을 기획해, 수익금을 환경과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아이들과 함께 시장놀이를 기획해 지역센터나 지역사회에 후원해 왔는데, 이번에는 아이들과의 논의 끝에 환경단체를 후원처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기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에 기부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계기가 있을까요?**

지역사회 기부는 주로 교사나 어른들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WWF 후원은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주체적으로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환경교육이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천과 기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 다른 활동도 진행하시나요?**

환경은 무엇보다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소등 미션’을 진행해, 부모님과 함께 전기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텀블러와 손수건 사용하기 등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 관련 팸플릿을 직접 제작해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진행하며, 어린이집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점점 더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인의 인식 변화와 책임 있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의왕시에서 시작된 저희의 캠페인처럼, 전국 곳곳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눈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 회계 보고

한국WWF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 해 6월 30일에 종료된다.
2025 회계연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을 포함한다.
WWF는 후원회원의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소중한 후원금을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투명경영을 위한 한국WWF의 지속적인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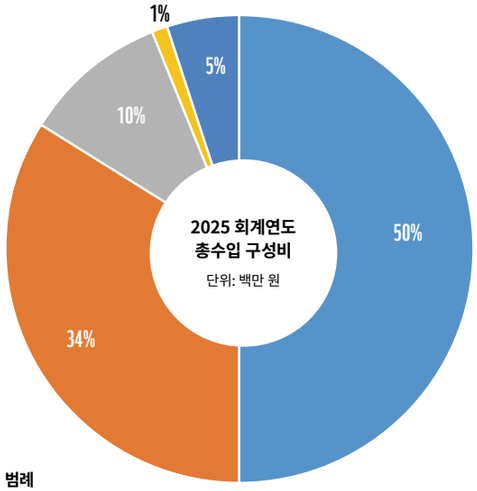
한국WWF는 공익회계법인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모금, 사업 운영, 후원금 관리 과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 내용과 예산을 계획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고, 주무관청에 수립 예산을 보고한다. 예산 변경이나 예산에 따른 후원금 사용 내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 집행한다. 또한 후원 목적에 적합한 사용을 위해 회계 시스템 내에서 용도에 맞는 계정과 증빙을 검증하고 있다. 연 2회 이상 이사회에서 사업 운영 및 지출, 결산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고,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연간 사업 실적, 수입·지출 내역 및 차기 연도의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며, 결산 내역을 이사회와 WWF 국제본부에 보고한다. 아울러 국세청 웹사이트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 수익

2025회계연도의 총수익은 104억 6천2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수치이다.
총수익의 구성은 개인 후원금(50%)과 기업 후원금(34%) 등 기부금 수익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또한 2025년에 처음 시작한 수익사업 수익이 10%, 이자와 환차익 등의 기타 수익이 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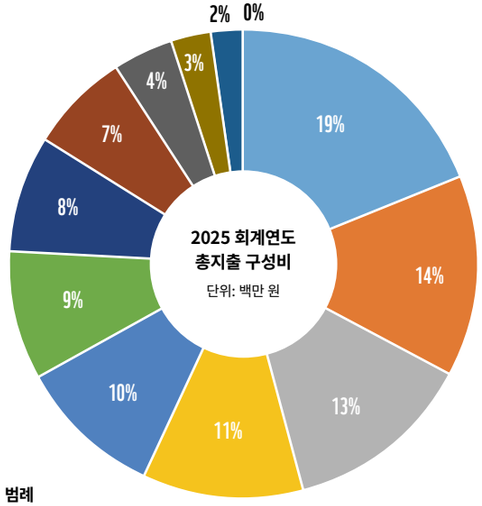

한국WWF 2025 연간보고서 42

##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감사 시스템

| | |
|---|---|
| **외부감사** | • 한미회계법인 • 연 1회 감사 |
| **정부감사** | • 환경부, 국세청, 세무서, 점검 및 감사<br>- 환경부: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의 보고서 제출<br>-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 의무 공시<br>- 세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 **공익법인공시** | • 국세청 웹사이트 공시 • 한국세계자연기금 웹사이트 공시<br>※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 |
|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내부감사** | • 연 2회 이상 이사회 감사 |
| **WWF-International 감사** | • 회계연도 마감 후 연 1회 감사 |

## 지출

2025 회계연도의 총지출은 98억 1천9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수치이다.
총지출 금액의 49%는 자연보전사업, 19%는 인식 제고 및 교육, 13%는 모금 활동, 10%는 수익사업, 7%는 운영 및 일반 관리비에 사용됐다.




총지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연보전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업 및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바다숲 복원과 블루카본 연구 등을 포함한 해양보전사업이 가장 큰 비중(14%)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기업의 자연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협력사업(11%)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기후에너지사업(9%)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WWF는 캠페인,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환경 분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과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WWF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회복을 목표로 담수와 해양 생태계 복원, 멸종위기종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공시(TNFD) 채택을 지원하여 생물다양성과 금융 리스크 관리가 연계된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WWF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회복을 이루기 위해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부문별 자세한 활동 내용은 본 연간보고서 내 'WWF 주요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WWF 2025 연간보고서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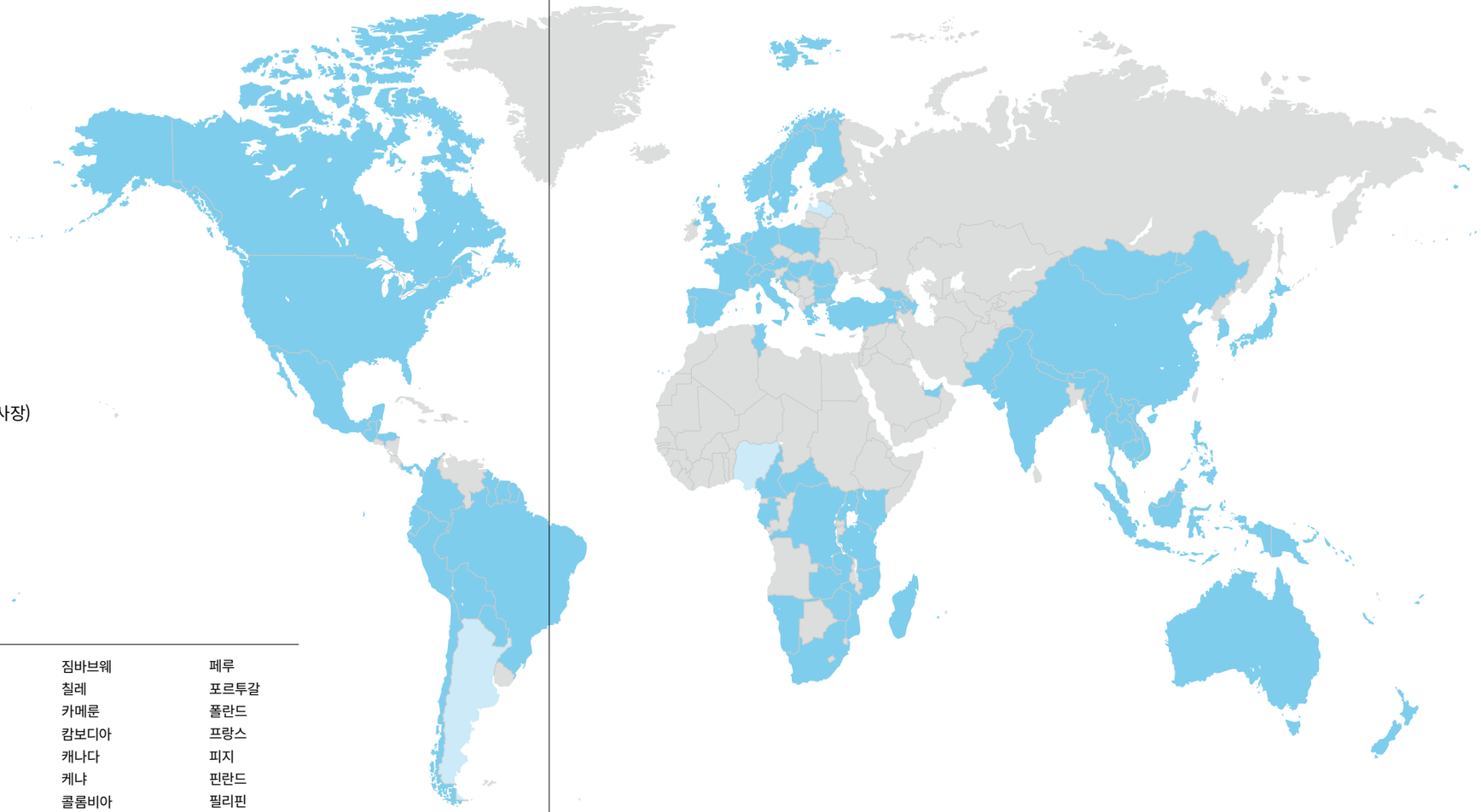
# WWF의 네트워크

## 한국WWF 이사회

### 이사장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 이사
강희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장)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대표/그룹 부회장)
이병욱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
조현민 (㈜한진 마케팅 총괄 겸 디지털플랫폼사업총괄 / 사장)

### 감사
함종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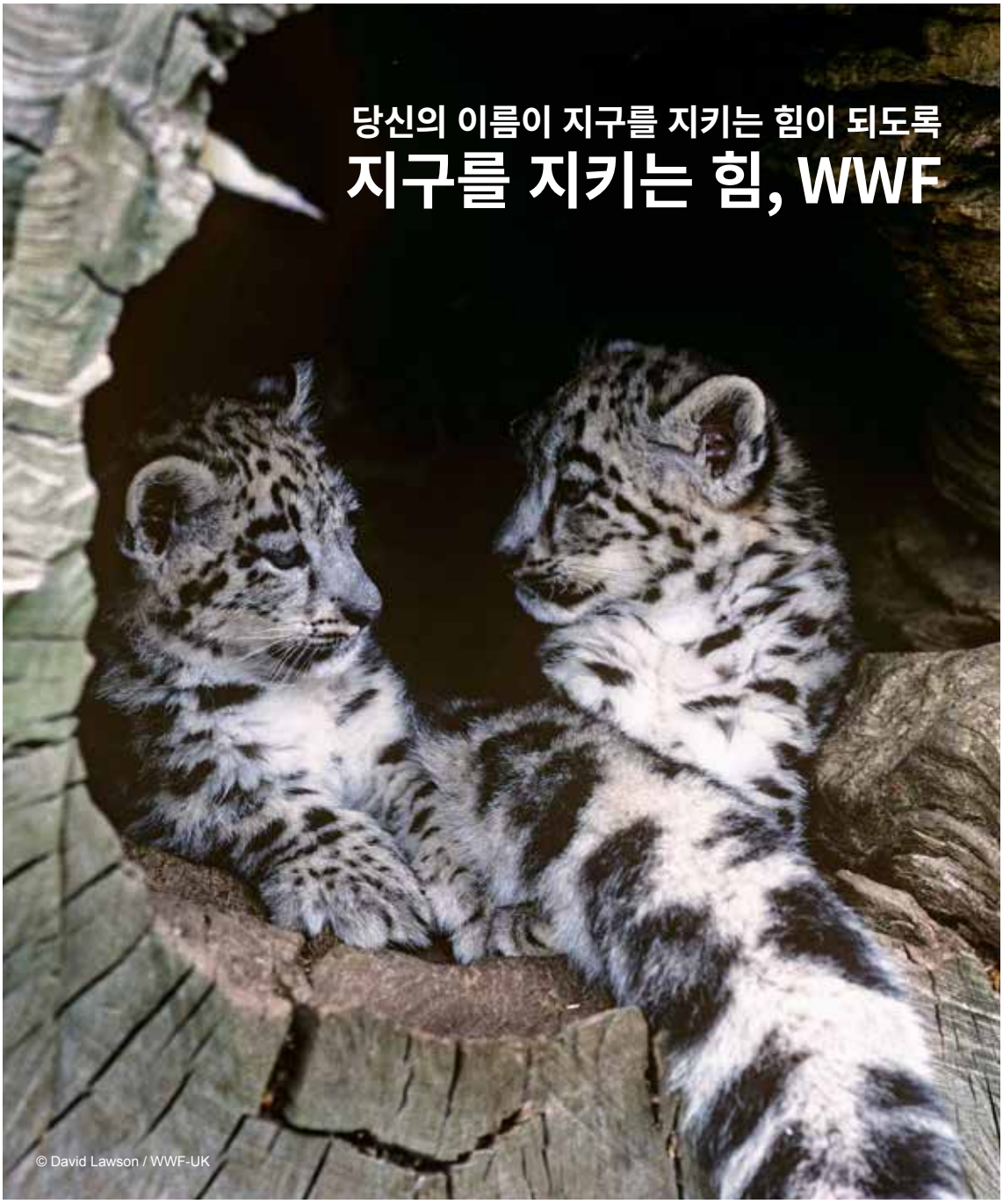



**WWF 본부 현황**

가봉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리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루마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잠비크
몽골
미국
미얀마
베트남
벨기에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솔로몬 제도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잠비아
조지아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태국
튀르키예
튀니지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WWF 제휴기관**

Emirates Nature (아랍에미리트)
Fundación Vida Silvestre (아르헨티나)
Pasaules Dabas Fonds (라트비아)




WWF

당신의 이름이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되도록 지구를 지키는 힘,
WWF와 함께 하세요

© 2025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